

제3회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 성황리에 개최

○ 제 3회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5.16 ~ 17 (2 일간) 마산 크리스탈호텔에서 한·일 양국의 학계인사와 산업보건관계자 140 여명 (한국 측 100 명, 일본측 40 명) 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.

○ 동 집담회는 양국간의 학술 및 인적교류로 산업보건의 기술향상을 도모키 위해 '84년에 결성되어 매년 양국이 교대로 개최해 온 학술대회로서 금번에는 “ 직업병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새로운 견해 ” 를 주제로 양측에서 12 개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진폐증에 대한 특별 강연과 집단보건관리에 대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.

○ 일본측 참가자들은 학술대회를 마치고 집단보건관리가 성공리에 실시되고 있는 마산수출자유지역과 당 협회 센터를 견학하고 고적의 도시인 경주관광을 마친 후 5.18 귀국하였다.

○ 집담회가 처음 출발당시 양국의 학계인사 40 여명으로 시작되었으나 불과 3년째를 맞이



하는 금번대회에 참가한 인원이나 학술발표내용으로 보아 급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사회에 있어서 산업보건의 중요성과 관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.

더우기 '87년도 집담회는 5월중에 일본 도쿄 고라쿠엔에서 개최기로 결정하고 일본측에서는 전국노동위생단체연합회 산하 73개 단체가 후원이 되어 참가할 계획으로 있어 명실공히 양국의 산업보건 발전에 자못 기대가 모아진다.

○ 끝으로 금번 집담회 행사준비에 동시동역 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지원을 하여 주신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최 영태 박사 일시 귀국



○ 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시 부터 지난 '80. 5 까지 회장을 역임하셨던 최 영태 박사께서 고국을 방문키 위해 5.28 부인과 함께 입국하셨다.

○ 최 박사께서는 '81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한때는 신병으로 투병생활을 하셨으나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며 현재는 뉴욕에서 현지교민들을 위해 건강상담 및 통역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계신다고 한다.

○ 당 협회에서는 최 박사님의 일시귀국을 기해 지난 6.2 18:30 팔래스호텔에서 전국 이사 및 예방의학회 관계공무원등 잊지못할 분들을 모시고 모국방문 환영회를 가졌다.

○ 최 박사께서는 국내 체류기간동안 고향인 전북 옥구에 잠시 들러 성묘 및 친지들을 방문하였으며 노동부에도 방문하여 과거 협회장으로 재직시 도와주었던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등 분주한 일정속에서도 제자 및 후배 교수들의 따스한 안내를 받으며 고국 발전상을 돌아보고 6.6 출국할 예정이다.